

# 갈 데가 없다. 하지만 어디로든 가야하는 인생들

행복한 책 읽기 **도터 빌링턴 '멋지게 나이 드는 법 46'**  
(작은 씨앗刊)

##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 노동자

천명관 지음

‘고래’, ‘나의 삼촌 부르스 리’, ‘고령화가족’ 등 천명관의 소설은 한 번 손에 잡으면 놓기 힘들다. 실타래 풀리듯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스토리의 향연은 그에게 ‘다고난 이야기꾼’이라는 이름을 갖게 했다.

천명관이 7년만에 소설집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 노동자’를 펴냈다. 책에 실린 8편의 단편은 어느 순간 인생이 꼬여버린 이들이 주인공이다.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다. 하지만 어디로든 가야했던’ 인물들이다. 그들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고, 막막하고, 슬프지만 저자는 따뜻한 유머로 이들을 감싼다.

표제작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일용직 노동자다. 한 때 트럭을 운전하며 한 가족을 건사한 가장이었지만 도박에 빠지면서 삶이 어긋나기 시작한다.



## 길에서 만난 빛쟁이 칠면조 고기로 패주고

“그래, 까짓것. 거칠게 한판 살다 가는거야”

생계를 책임져 왔던 트럭을 날리고 이혼까지 당한 후 막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는 ‘그래, 까짓것. 거칠게 한판 살다 가는 거다. 인생 뭐 있나?’를 외치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냉동창고에서 일하다 거대한 냉동 칠면조 고기를 받게 된 그는 칠면조로 길에서 만난 빛쟁이를 두들겨 패고, 트럭을 훔친 뒤 또 다른 꿈을 꾸며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슬슬 녹기 시작한 칠면조 고기와 함께.

평온한 제목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전원교향곡’은 꿈을 안고 귀농했던 젊은 부부의 그 꿈이 깨어지는 모습을 아프게 그린 작품이다. 어떤 희망도 없는 섬

에서 살아가는 동갑내기 두 친구가 한 남자를 놓고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 ‘동백꽃’은 전하면서 유쾌하다.

책에는 그밖에 어린 시절 겪었던 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유명 작가의 방황을 그린 ‘왕들의 무덤’, 실직한 이후 고시원에서 생활해오던 중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이 들었다가 급격한 체온 저하로 사망한 남자가 죽은 자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담은 ‘사자(死者)의 서’ 등이 실려 있다.

책 마지막 ‘작가의 말’에서 그는 모비명에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다. ‘꿈뻛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글쓰는 일로 밥먹고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다.

〈창비·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명관

## 새로 나온 책

▲건축적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건축 대학원인 ‘바틀렛’ 출신의 젊은 국내 건축가 25인이 새로운 건축의 흐름을 소개한 책이다. 책에 소개된 작업들은 고전적인 건축의 개념에서 벗어나 예술 및 기타 학문으로 그 영역이 확대된 진보된 개념을 갖는다. 한국의 젊은 건축가 세대인 이들의 건축은 다른 예술 장르에 영감을 주기에 충분한 시각과 주제를 담고 있다.



〈미메시스·2만8000원〉

▲여섯 번째 대멸종=지난 50여년간 이미 지구는 다섯 번의 대멸종을 겪었고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급격히 떨어졌다. 현재 과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여섯 번째 대멸종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커’의 전속기자인 엘리자베스 콜버트는 인류가 왜, 어떻게 지구를 이러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에서는 이미 멸종



되었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파나마 황금개구리, 큰바다쇠오리 등 십여 종의 생물을 소개하고 사라져가는 생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처음북스·1만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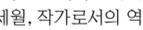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하는 매일 묵상=14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보내는 영적 메시지. 일 년 열두 달 날마다 한 장씩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엮어 놓았다. 교황이 책에서 강조하는 실체는 대화다. 가장 중요한 대화는 하느님과 대화, 즉 기도다. 교황은 “좋은 때나 힘든 때, 좋은 일을 했을 때나 그른 일을 했을 때, 두려워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계속 말을 걸라”고 이야기한다.

〈삼인·1만5000원〉

▲화가, 혁명가 그리고 요리사=바버라 킨슬러가 7년의 세월, 작가로서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완성한 작품.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레온 트로츠키 등 실존했던 인물들과 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인물인 소설가 해리슨 셰퍼드의 인생이 교차하면서 드러나는 역사의 뒷이야기들은 현대인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2010년 오렌지 상을, 이듬해에는 데이트 문에 평화상을 수상



했다. 〈알에이치코리아·1만5800원〉

▲2030 기회의 대이동=불확실성이 가장 확실한 월리가 되어버린 시대, 변화하는 기회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책. 미래의 주인이 되려는 이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이들을 위한 미래 전략 지침서로 핵심과 원리를 찾아 추적, 통찰, 정리한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힘의 원리, 경험하지 못했던 움직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끈다.

〈김영사·1만4000원〉

▲글로리홀=2009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등단한 시인 김현의 첫 시집. 시집 같기도, 소설집 같기도 하다. 255쪽에 달하는 ‘퀴어 SF-메타픽션 극장’ 속 차곡차곡 집힌 51편의 시는 ‘덕력’이 있다면 마음껏 두고두고 펼쳐 읽을 법한 축하지 않는 화수분이다. 시인이 한 권의 시집으로 묵기를 선택한 많은 요소들은 결국 인간과 세계의 욕망을 드러내며 억압과 결핍을 조망한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 어린이 책

▲오빠와 나=일곱 살 단추와 열네 살 오빠의 우애와 사랑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화. 종일 가게를 봐야 하는 엄마와 몸을 다쳐 누워만 있는 아빠 때문에 늘 오빠와 함께인 단추. 하지만 단추는 외롭기는 커녕 오빠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다. 자꾸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공주니어·9000원〉



방죽과 오송습지에서 펼쳐지는 새끼두꺼비들의 자연생태 이야기. 자연생태 사진작가로 국내 첫 사진동화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신여성 작가는 해마다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두꺼비의 보호를 위해 5년 동안 두꺼비를 촬영하고 관찰해 스토리텔링을 입혀 동화책으로 만들어냈다.

〈여우벌·1만2000원〉

▲처음 만나는 공공장소=올바른 생활양식과 사회질서를 익혀 어린이 스스로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잘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식정보그림책. 카멜레온 삼 남매가 여러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며 함께 사는 사회를 경험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즐겁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창비·1만2000원〉

▲꼬마 생쥐 필펠의 모험=집 밖 세상이 보고 싶어 모험을 떠나는 꼬마 생쥐 필펠의 이야기. 정원에서 평화롭게 살던 필펠은 어느 날 큰 집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험을 떠난다. 큰 집을 돌아다니며 갖가지 소동을 일으키는 필펠의 이야기를 읽으며 아이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된다. 〈푸른숲주니어·1만원〉

수식어 하나로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책이다. 어떻게 하면 멋지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영원히 젊을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어지려고 온갖 노력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역행하려고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는 나이는 자연의 이치다. 다만 현대의학의 발달로 조금은 늦출 수 있겠지만 유지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 책에는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46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취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저자 도터 빌링턴의 열정이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연구하면서 다년간 직접경험을 통해 저술했다는 점에 더 공감이 간다. 우리는 똘을 배우고 경험할 때 비로소 새로운 활력을 얻고 삶에 충실하게 된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은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부제로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다. 첫 장을 읽는 순간 내면에서 꿈틀하는 기운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열정을 갖고 끊임없이 성장하면 인생의 여정



## 멋진 삶의 태도는 열정이다

이 즐겁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꿰차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또는 매체나 인쇄물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읽어 봤을만한 내용이다. 제시한 명제마다 명쾌하다는 것도 그다지 새롭다는 생각은 안 든다. 하지만 저자가 겪은 구체적인 사례와 짧은 격언들을 통해 공명을 일으켜 독자들에게 결심과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다. 삶의 태도와 방식에 따라 자신이 새롭게 변화된다면 거울삼아 되새겨볼 일이다.

실천법 중에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온다. 창의성은 생각의 방식이며 삶의 방식이지 어느 것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지고 나아가서 감성공유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해관계가 성립되고 사이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세상에 답이 하나 뿐인 것은 없으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

이 책 역시 간략하게나마 행복론이 제기된다. 이 세상 누구도 늘 행복할 수는 없다. 인생을 마음 편히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그만큼 고통과 실패를 곳곳이 이겨낸 사람들이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우리는 마음먹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짙막한 명언 속에도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생활 지침서로 굳이 꼽으려면 ‘인생을 즐겨라’, ‘열정을 발견하라’, ‘매력을 발산하라’, ‘경청하라’ 등이다. ‘마음 챙김’과 ‘공감의 힘’은 명상 시간의 연속이다. 최선의 소통은 대화라고 정의를 내리는 저자의 지혜가 돋보인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깨우쳐야만 성장한다는 것이다.

나이 들어가면서 성장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수 없는 일이다. 이 책을 읽으면 여름내 더위에 부대껴던 정서와 감성에 꽃꽂이를 부어 멋지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질 것이다.



안영옥 1999년 광주일보신춘문에 동화 당선



가입문의 1855-0000



##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vision.com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에버플러닛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86)